





대술하이!

고려·연세·서강 대나무숲 인기글 모아보기

(타 학교 추가 예정)

Web Crawling

Action Job → Background로 FB API 호출
API 호출 실패 시 자가복구를 위한 예외 처리
Key 보안을 위해 figaro gem 사용



Single Page Application

RIA 구현을 위해 Ajax 적극 활용
Infinite Scroll, ReadMoreJS, ...



변경 사항

로고 변경 팀원들의 급격한 노화

Google Map API 활용

게시글별 상위 Reaction Sorting

Total Reaction 클릭 시 세부사항 노출

게시글별 작성 및 갱신 시간 추가

댓글 작성자 프로필 사진 Crawling

Search: Keyword Highlighting





인기 글

모든 글

검색

Dev-Team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채희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김강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안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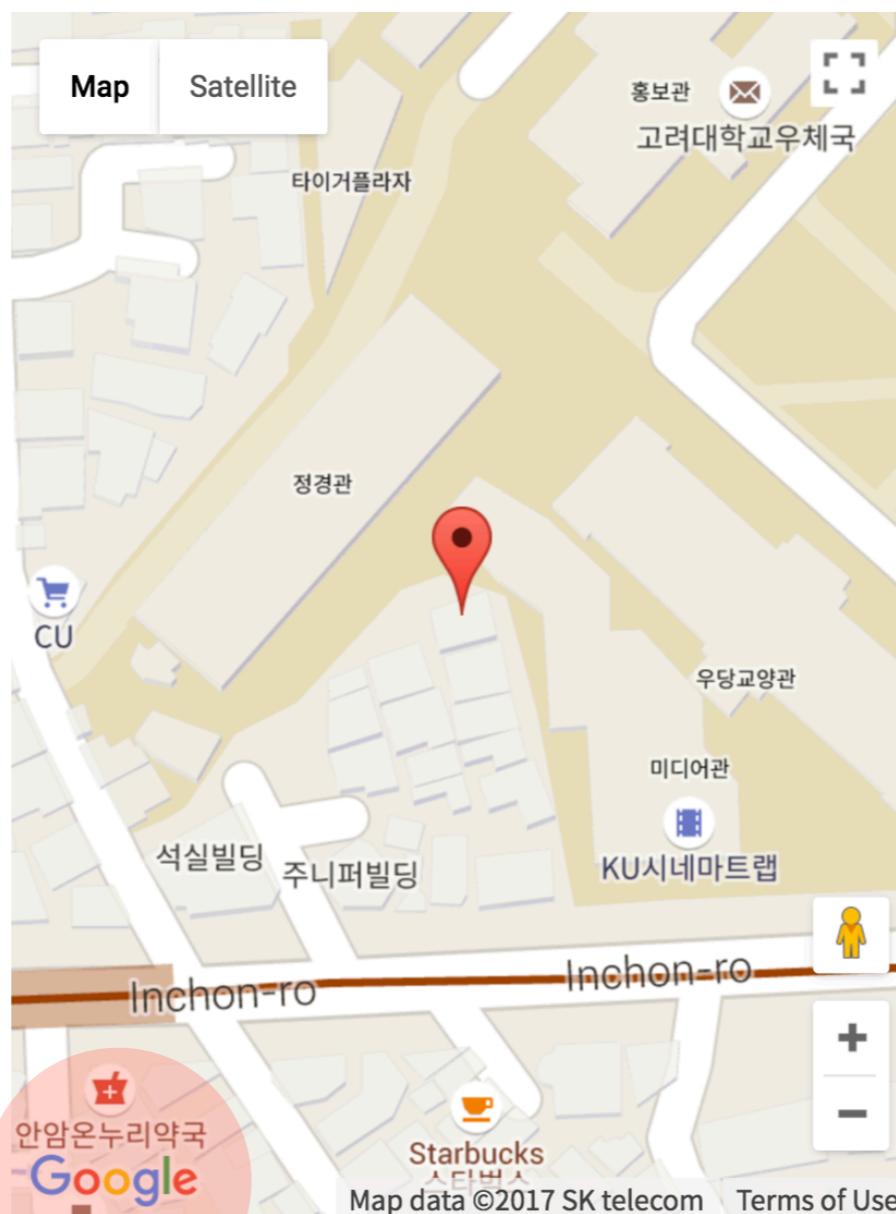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태엽

멋쟁이 사자처럼 X 고려대학교



인기 글 모든 글 검색

멋쟁이 사자처럼 X 고려대학교



Google Map API



고려대학교 파이빌 S306

010-3375-4005

heejae@likelion.org

[인기 글](#)[모든 글](#)[검색](#)**연세대학교 대나무숲**

작성일자: 2015-07-03



45분 전 업데이트

연대숲 #32654번째 외침:

2015. 7. 3 오후 10:30:00

이틀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프셨던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사고로요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갈때 저는 공연장에 있었어요
휴대폰도 무음으로 해둔 상태로요
전화가 왔는데 받질 않았어요.
휴대폰을 껐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었는데요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좋다고 뛰면서 놀고 있었어요
자꾸 전화온다고 짜증내면서

엄마하고 마지막으로 한 대화가 뭔지 아세요?
놀러 가는데 자꾸 몇시에 올거냐고 귀찮게 군다고
제가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나가는데 엄마가 같은 자리에서 하염없이 서있었어요
엄마한테 카톡이 왔는데 미워서 답도 안했어요

어제까진 눈물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사가 풀린것처럼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엄마에게 너무... [더 보기](#)

**상위 3개
Reaction 추출**

**AJAX 활용한
“더 보기” 버튼**

165590 명이 공감하였습니다.

[인기 글](#)[모든 글](#)[검색](#)**연세대학교 대나무숲**

20495 명



(익명) 안녕하세요. 연대생은 아니지만 친구가 좋아요를 눌러서 보게되었는데..용기내어 약간의 술김에 익명으로라도 댓글을 달아봅니다
우선 저희 엄마도 돌아가신지 2년이... [더 보기](#)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2893 명



#공순이 마음이 미치도록 아파오네요....

**고려대학교 대나무숲**

작성일자 : 2016-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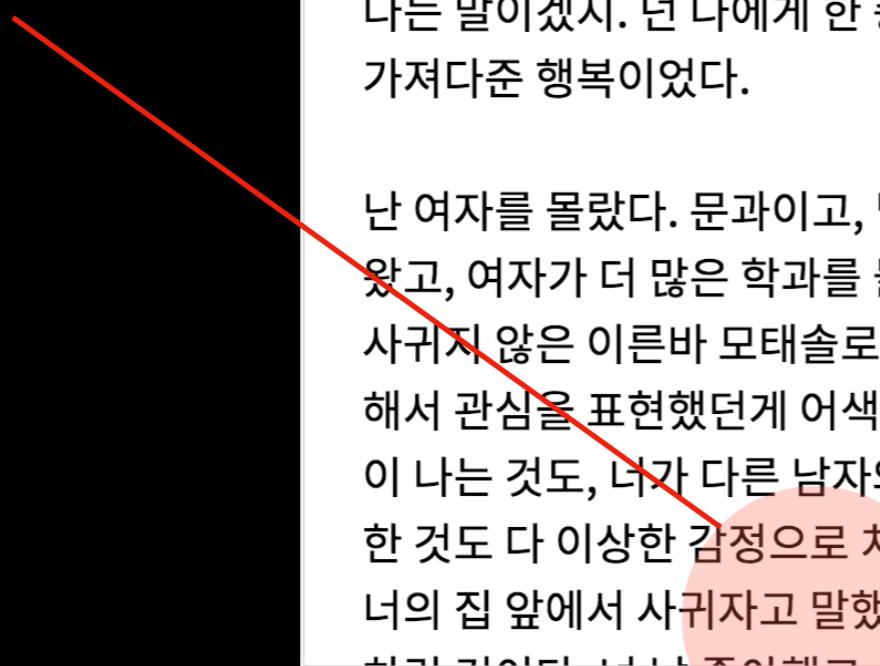
1시간 전 업데이트

#22937번째포효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줄 알았다는 말이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어느순간 사라지면 그제서야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말이겠지. 넌 나에게 한 송이의 꽃이었고 봄은 너가 가져다준 행복이었다.

난 여자를 몰랐다. 문과이고, 남녀공학인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여자가 더 많은 학과를 들어왔지만 한 번도 여자를 사귀지 않은 이른바 모태솔로였던거다. 그래서 너가 계속 해서 관심을 표현했던게 어색하고 이상했다. 널 보면 웃음이 나는 것도, 너가 다른 남자와 있는걸 보면 가슴이 찌릿한 것도 다 이상한 감정으로 치부했다. 결국 끝끝내 너가 너의 집 앞에서 사귀자고 말했을 때야 그 모든 전말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너는 좋아해라고 너도 너 좋아해라고 했어.

스크롤 위치 기반 Infinite Scroll 구현



[인기 글](#)[모든 글](#)[검색](#)**고려대학교 대나무숲**

작성일자: 2017-06-25

1시간 전 업데이트

#29083번째포효

얼마 전,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에게 테러를 가한 일이 있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히 그 대학원생의 행동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대학원의 부조리와 대학원생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원생의 생활에 대해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제보를 올려요.

혹시 주변에 대학원생이 있다면 이 글을 읽고 앞으로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들은 직장인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부생처럼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출퇴근과 업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구요, 심화된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진학한 만큼 학업의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해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더 보기](#)

1022 명이 공감하였습니다.

**Jong-Seok Lee**

직장인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었으면 취업을 했어야지. 학부생처럼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학부졸업을 하는 순간 백수가 아닌 이상 모두가 그런것. 학업이...

[더 보기](#)

페이스북 원본 글
바로 가기

작성 및 갱신 시간
알고리즘 구현

[인기 글](#)[모든 글](#)[검색](#)[검색](#)**고려대학교 대나무숲**

작성일자 : 2017-06-22



1시간 전 업데이트

#29025번째포효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께서 해주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기말고사 시험 전 날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며 “선생님, 내일 시험 보는 두 과목 중 하나는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해도 소용 없겠죠? ”라고 이야기했다. 선생님께서는 잠시동안 침묵하시다 대답하셨다.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면, 나중엔 포기하는게 점점 더 쉬워진단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난 지금도 내 머릿속을 맴도는 말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깊게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간다.

나 말고도 다른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잠시나마 생각 할 수 있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자 나의 아버지이신 선생님께 오늘도 존경심을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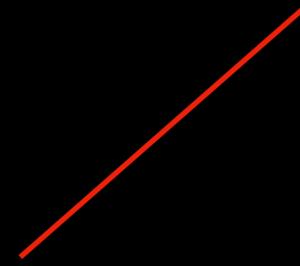
1863 명이 공감하였습니다.

**최현수**

310 명

한 과목 드랍해보니 나머지 드랍하는건 일도 아니더라고

Keyword Highlighting



(시간이 된다면?)
결과물 시연